

3주차

新수능 舊내신 '문학원론'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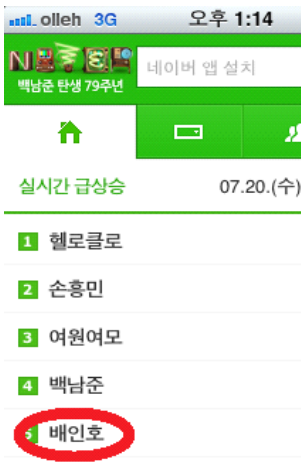
수험 번호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배인호입니다.

16~18시즌에는 2만명,  
올해부터는  
학생 인증이 된 경우만 자료를 제한적으로 드렸지만,  
별써 2000명이 넘는 현장 강의 / 온라인 라이브와  
지속적인 자료를 구독하여 받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무게감을 위해,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인강 시작, 센세이션을 일으켜  
신인 강사가 1개월 만에 소속사 매출의 70%,  
1타급의 인지도를 갖게 됩니다.



강사가 실점 5위를 했을 정도 (깨알같이 Son! 2위)

사실 신인 강사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남들과 다른 관점과 경험과 준비로 '평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 당시 서울대 국어교육과 수업은
1. 우리나라 국어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으신 교수님
  2. 평가원 임용된 평가원 연구 교수님 (현재 출강 불가)
  3. 석박사 연구 및 학계 소장학파

특히 저는 평가원 교수님들 수업을 직접 들으며  
일반 전공자들조차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현재 수능 출제와 관련된 원칙을 게시한 시작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공문서인 '출제매뉴얼'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출제매뉴얼 쓰신 세 분의 교수님 수업을 모두 듣거나 출제매뉴얼  
관련한 전공지식/의견을 직접 여쭙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가원 임용된 교수님과  
그 교수님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집단 지성을 이루는  
교수님 집단이 있고,

저는 참 운이 좋게, 그 교수님들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매주, 최소 2주 1회 이상 파이널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칼럼을 올려, 여러분 국어 학습  
방향성을 잡아드리려 합니다.

때때로 내용이 무게 있으니, 가급적 출력하여,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다음 지문을 나름 시간을 충분히 쓰되, 15분  
이상 넘기지 말고 풀고, 다음의 해설로 갑니다.

2021학년도 수특 문학 고전시가 61~64p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軍士逃亡) 네로고나  
 허리 위로 불작시면 배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잊혀지리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官) 옮겨 살면  
 천(賤)히 되기 예사거든 본토(本土)\* 군정(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손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 뿌리박아  
 칠팔월에 심을 캐고 구시월에 돈피(黓皮)\* 잡아  
 공채(公債) 신역(身役)\* 값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흥원 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  
 후한 값 받고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 도구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든  
 어와 생원인지 초관(哨官)\*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소냐  
 우리 조상 남중 양반(南中兩班)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侍從臣)\*을 다니다가  
 남의 시기 참소 입어 전가사변(全家徙邊)\*한 후에  
 극변방(極邊方)인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邑中)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有司) 장의(掌儀) 체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로써  
 군사 강정(降定) 되던 말가 내 한 몸이 혈어나니  
 좌우 전후 많은 가족 차차 충군(充軍)\* 되거고야  
 누대봉사(累代奉祀)\*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어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三兩五錢) 돈피 두 장 의법(依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四十六兩)  
 해마다 맞춰 무니 석송\*인들 당할소냐  
 약간 농사 전폐하고 삼을 캐러 입산(入山)하여  
 허항령(虛項嶺) 보태산(寶泰山)을 들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 짝은 전혀 없고 오가\*일이 날 속인다  
 하릴없이 헛되어 와서 팔구월 고추바람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獵皮山行) 하려 하고  
 백두산 등에 지고 강 아래로 내려가서  
 쓰러 꺾어 누대 치고 일갈나무로 모닥불 놓고  
 하나님께 축수(祝手)하며 산신(山神)님께 발원(發願)하여  
 물채줄을 갖춰 쫓고 사망\* 일기 원하되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 기회 아니 불네

(중략)

나라님께 아뢰자니 구중천문(九重天門) 멀어 있고  
 요순(堯舜) 같은 우리 성주(聖主) 일월(日月)같이 밝으신들  
 불점성화(不沾聖化) 이 극변(極邊)에 복분하(覆盆下)라 비칠소  
 냐  
 그대 또한 ㉡내 말 듣소 타관 소식(他官消息) 들어 보게  
 북청 부사(北靑府使) 뉘실런고 성명(姓名)은 잠깐 잊었네  
 많은 군정 안보(安保)하고 백골 도망(白骨逃亡) 원통함 풀고  
 각대 초관(各隊哨官) 여러 신역 대소민호(大小民戶) 나눠 걷으  
 니  
 많으면 닷 돈 풍수 적으면 서 돈이라  
 인읍(隣邑) 백성 이 말 듣고 남부여대(男負女戴) 모여드니  
 군정 허오(軍丁虛伍)\* 없어지고 민호(民戶) 점점 늘어 간다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을 군정 신역  
 북청 일례(北靑一例) 하여지라 영문(營門) 의송(議送)\* 정(呈) 모  
 탄 말가  
 본읍(本邑) 맡겨 제사(題辭)\* 맡아 본 관아에 부치온즉  
 불문시비(不門是非) 올려 매고 형문(刑問)\* 한 번 맞았던 말가  
 친신만고(千辛萬苦) 놓여나서 고향 생애 다 떨치고  
 이웃 친구 하직(下直) 없이 부모휴유(扶老携幼)\* 한밤중에  
 후치령 길 비켜 두고 금창령(金昌嶺)을 허위 넘어  
 단천(端川)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聖大山)을 넘어서면  
 북청 땅이 괴 아닌가 거처호부(居處好否) 다 떨치고  
 모든 가족(家屬) 안보하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  
 내 곧 신역 이러하면 이친기묘(離親棄墓)\* 하울소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애민(忠君愛民) 북청 원님 우리 고을 빌이시면\*  
 군정도탄(軍丁塗炭) 그러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  
 이 영로(嶺路)로 접어들 때 그대 내 말 깨치리라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황설수설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나마 모자라리  
 일모총총(日暮怱怱) 갈 길 머니 하직하고 가노매라

- 작자 미상, 「갑민가」 -

- \*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홰바지.
- \* 전태발이: 다리를 저는 사람.
- \* 본토: 본디의 고향.
- \* 돈피: 담비 모피.
- \* 신역: 나라에서 부과하는 군역과 부역.
- \* 초관: 조선 시대에, 한 초(哨)를 거느리던 종구품 무관 벼슬.
- \* 시종신: 임금 곁에서 문학으로 보필하던 벼슬아치.
- \* 전가사변: 조선 시대에,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평안북도, 함경 북도와 같은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일.
- \* 충군: 조선 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벌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 대개 수군이나 국경을 수비하는 군졸에 충당함.
- \* 누대봉사: 여러 대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
- \* 의법: 정해진 법.
- \* 석송: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이름.
- \* 오가: 두릅나뭇과의 활엽 관목.
- \* 사망: 장사의 이(利)가 많이 남는 재수.
- \* 군정 허오: 군적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없던 지방의 장정.
- \* 의송: 조선 시대에,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던 민원 서류.
- \* 제사: 관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쓰던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
- \* 형문: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
- \* 부로휴유: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이는 보살핌.
- \* 이친기묘: 친족들과 이별하고 조상의 묘는 버림.
- \* 빌이시면: '빌려주시면'으로 추정됨.

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제시된 개인의 개별적 경험이 ㉡에서 일반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 ② ㉠에서 제시된 개인의 고난이 ㉡을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을, ㉡은 상대방의 과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 ④ ㉠은 상대방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은 상대방에 대해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⑤ ㉠은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비애감을, ㉡은 전해 들은 정보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을 담고 있다.

2. 다음은 윗글에 대한 어느 학생의 '수행 평가지'이다. ㉠~㉢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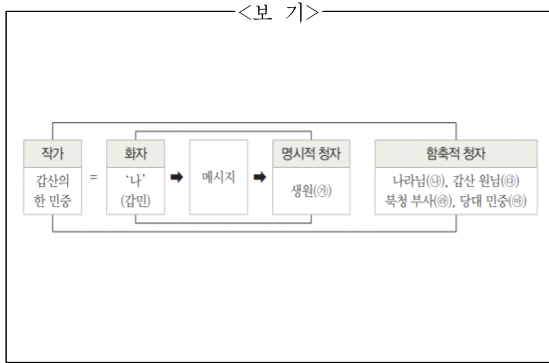
[수행 가평지]

「갑민가」는 갑산에 살았던 민중의 노래로, 나는 작가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중에서 대화 형식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감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원과 갑민의 대화 속에 드러난 각 각의 입장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생원	갑민
주 장	갑민은 갑산에 머물러야 한다.	나는 갑산을 떠나야 한다.
근 거	- 갑산을 떠나더라도 예상 되는 문제점이 있다. ...㉠ - 갑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노력해 본 경험상 갑산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 -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 - 북청 지역은 갑산과 다른 상황이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 ① ㉠: 타관으로 옮겨 살면 친한 신세가 되기 쉽다.
- ② ㉡: 인삼을 캐고 돈피를 잡아 신역을 갚고 살면 된다.
- ③ ㉢: 친족들의 신역도 책임져야 해서 돈을 남길 수 없고 인삼은 찾기 어렵다.
- ④ ㉣: 이웃에 알리지 않고 가족들과 단친 땅으로 떠나려고 했으나 불가능했다.
- ⑤ ㉤: 부사님이 선정을 베풀고 있는 북청은 백성들이 살기에 좋다.

3. 윗글의 소통 구조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는 행위가 서로 다른 ㉠과 ㉡의 대조를 통해 ㉢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작가는 화자가 ㉠에게 소원을 비는 방식을 통해 ㉢와 같은 존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③ 작가는 미래에 ㉣가 갑산을 떠나려는 자신의 현재 생각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 ④ 작가는 ㉣가 ㉡에 속하는 인물임을 인식하며 이들의 삶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작가는 ㉡ 중에 복청으로 옮겨 간 사람들을 바탕으로 ㉢에 대한 불만을 자신만 가진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 확인 사항

- 본 교재는 Semester I 시론, 고전시가론, 소설론 등의 문학 원론 학습 Base를 전제합니다.
- 따라서, 본 교재 학습과 병행, 또는 선행하여 Semester I의 문학 원론 학습을 필수로 진행 바랍니다.

### #1. '문학'에서의 정보처리 능력

과장을 조금하여 설명하면, 많은 학생들은 기출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 해설에 익숙합니다.

우리의 문학 문제 접근 사고 과정

1<sup>st</sup> 지문을 나름대로 읽는다

2<sup>nd</sup> 문제를 읽는다.

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sup>rd</sup> ㉠과 ㉡을 확인한다.

① ㉠에서 제시된 개인의 개별적 경험이 ㉡에서 일반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4<sup>th</sup> ㉠에서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개인의 개별적 경험인지 확인하고

5<sup>th</sup> ㉡에서 일반화 되는지 확인한다.

6<sup>th</sup> ㉠ 선지의 OX 옳고 그름을 판별한다.

이후 나머지 선지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한다.

② ㉠에서 제시된 개인의 고난이 ㉡을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려, 위와 같은 접근으로 현 시점 수능국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답을 고르는데 유용한 접근방법이고, 사실, 모든 사람이 위와 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접근이 결국 수능날 좋지 못한 이유는

그 이유는

1. 80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접근법
2. 평가원이 생각하는 문학 교육 목표와 전혀 부합하지 않음
3. 언어학-논리학 시험이 아님
4. 국어국문학 시험이 아님
5. 결정적으로, 선지 하나 하나의 OX 진위 판별 수능 유형은 5지 선다가 아닌, ㄱㄴㄷ 합답형임.

### #2. '국어'문항 개발과 설계 의도

즉, 아예 유형 자체가 다릅니다.

출제 의도가, 한 명제, 한 문장의 진위 판별을 의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됩니다.

21. 실수  $t$ 에 대하여 곡선  $y=e^x$  위의 점  $(t, e^t)$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f(x)$ 라 할 때, 함수  $y=|f(x)+k-\ln x|$ 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k$ 의 최솟값을  $g(t)$ 라 하자. 두 실수  $a, b(a < b)$ 에 대하여  $\int_a^b g(t)dt = m$ 이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점]

<보 기>

ㄱ.  $m < 0$ 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b(a < b)$ 가 존재한다.  
 ㄴ. 실수  $c$ 에 대하여  $g(c)=0$ 이면  $g(-c)=0$ 이다.  
 ㄷ.  $a=\alpha, b=\beta(\alpha < \beta)$ 일 때  $m$ 의 값이 최소이면  $\frac{1+g'(\beta)}{1+g'(\alpha)} < -e^2$ 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즉, ㄱ이 옳고 그르냐, ㄴ이 옳고 그르냐...

결국, 정답은 ㄱㄴㄷ(스포 방지)이 맞으니

⑥번!과 같은 사고 흐름입니다. 더 볼까요?

1. 다음은 물질 (가)~(다)의 화학식이다.

H <sub>2</sub>	MgO	CH <sub>4</sub>
(가)	(나)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원소이다.  
 ㄴ. (나)는 화합물이다.  
 ㄷ. (다)는 분자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는 2020 학년도 수능 화학 I 입니다.  
 사실, 스포일러고 뭐고 간에... 중학 수준...  
 (5년 전에 중학교 때 배운 거라 기억도 잘 나는 문제라서 그냥 바로 풀게요. 그리고 그냥 제 기억이라 틀릴 수 있어요...)

주장(판단) : ㄱ 맞음(O)  
 근거 : (개념) 원소 개념 적용!

주장(판단) : ㄴ 맞음 (O)  
 근거 : (개념) 화합물 개념 적용!

주장(판단) : ㄷ 맞음 (O)  
 근거 : (개념) 분자 개념 적용!

그러면?  
 선지는 ⑤번 정답이군.

보이시죠?  
 ㄱㄴㄷ 합답형 문제가  
 주장 + 근거 = 논리  
 사고를 묻는 평가원의 대표 유형입니다.

반면에?

3. 다음은 이산화 질소(NO<sub>2</sub>)와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text{NO}_2 + b\text{H}_2\text{O} \rightarrow c\text{HNO}_3 + \text{NO} \quad (a \sim c: \text{반응 계수})$$

a + b + c는? [3점]

① 7      ② 6      ③ 5      ④ 4      ⑤ 3

이런 유형은?

누가 ①번선지 옳고 그름, ②번 선지 옳고 그름을 따지나요...

역시, 출처는 2020 학년도 수능 화학 I 입니다.  
 사실, 스포일러고 뭐고 간에... 중학 수준...  
 (5년 전에 중학교 때 배운 거라 기억도 잘 나는 문제라서 그냥 바로 풀게요. 그리고 그냥 제 기억이라 틀릴 수 있어요...)

근거1 좌변 N 원소 개수는 a×1개 인데, 우변은 c+1개  
 근거1 = 동치 명제 방정식① = a=c+1

근거2 좌변 O 원소 개수는 a×2+b×1개 인데,  
 우변은 c×3+1개  
 근거2 = 동치 명제 방정식② = 2a+b=3c+1

근거3 좌변 H 원소 개수는 b×2개 인데,  
 우변은 c×1개  
 근거3 = 동치 명제 방정식③ = 2b = c

중2 때 배운 연립 방정식입니다.  
 풀어보죠...  
 답은?

...  
 ...  
 ...

a=3  
 b=1  
 c=2

a+b+c=6 정답 ② 끝  
 여기서 누가 ①번 선지 어디가 맞고 틀리고 따지나요?

국어와 영어 역시 비슷한 사고로 개발/설계된 문항인데,  
 다만 접근 과정에서 소거법을, ①선지 out 근거 잡는게  
 유용한 방법이라서 활용하는 수준이지, 절대로 주된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문학 문제 접근 사고 과정

1<sup>st</sup> 지문을 나름대로 읽는다

2<sup>nd</sup> 문제를 읽는다.

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sup>rd</sup> ㉠과 ㉡을 확인한다.

① ㉠에서 제시된 개인의 개별적 경험이 ㉡에서 일반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4<sup>th</sup> ㉠에서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개인의 개별적 경험인지 확인하고

5<sup>th</sup> ㉡에서 일반화 되는지 확인한다.

6<sup>th</sup> ①선지의 OX 옳고 그름을 판별한다.

이후 나머지 선지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한다.

② ㉠에서 제시된 개인의 고난이 ㉡을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

이러한 사고를 하니  
 단어 하나 하나  
 개념 하나 하나  
 내용 하나 하나  
 그리고 그걸 또 조합한 선지 하나 하나를 따지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2. '국어'문항 개발과 설계 의도 파악을 잘못된 일반인은?

1. 80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접근법  
 => 정보를 하나 하나 확인 하는 과정에서, 실전 시간 부족으로 1~3지문을 날림.

2. 평가원이 생각하는 문학 교육 목표와 전혀 부합하지 않음

3. 언어학-논리학 시험이 아님  
 => 문학 작품 감상, 출제 의도, 출제 목적을 전혀 모르고, 그냥 정보를 하나 하나 진위 확인 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논리적 사고에 근거하다 보면  
 2개 선지 중에 판단이 안 되거나,  
 도저히 납득은 안 되지만, 적당히 답 찍고 넘어감.

그리고 멘탈 뿌러짐

4. 국어국문학 시험이 아님  
 작품 해석, 지식, 암기로 접근하다,  
 대치 4대장 오개념 논란으로 수능날 학생이 박살 남

5. 결정적으로, 선지 하나 하나의 OX 진위 판별 수능 유형은 5지 선다가 아닌, 7나도 합답형임.

이제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법 정확히 잡습니다.  
 한 장 파이널 펼칩니다.

**문학'서정'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비문학(=이성) + (문학=감정) = 완전한 인간

cf) 15수능 칸트 미감적 판단력. 주관적 보편성. 미감적 공동체 ⇒ **문학적 관습**

문학을 왜 하나고? '국어'시험이니까. 논리학 시험 아님!  
서정장르 교수학습 목표 : '공감능력 향상'  
= 정전교육목표. 따라서...

1. 서정 장르 주제 = 정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반응)  
← (문학적 관습) ← 상황/분위기
2. 문장 구조 S O C Ad V & 수식, 반복, 강조
3. 전체 구조, 시상전개방식, 특이한 소재, 제목 집중
4. 문학적 관습, 전형적 주제 매우 중요
  - 개념어 문제 10% 내외
  - 내용-공감-감정 처리 문제 90%
  - 주제 관련 키워드 선지 정답확률 87% (14~20기출 14문항 중 11문항)
5. 선지 판단은, 주제로 좁히고 필요시 발췌등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게 출제 목표

위의 접근 틀은, 수업 내용 바탕 접근을 추천드리고, 일부 접근 내용은 무료 영상으로도 드리고 있으니, 자료로만 학습 중인 학생들도 꼭 이용 바라며...

풀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국어 학습은

1. 국어국문학 Base
  - 작품에 대한 지식, 작가에 대한 지식, 개념에 대한 지식을 적용해서, 표현법을 분석해 보는 등의 활동을 하는 일반적 내신 수업

하지만, 수능에서는 큰 한계를 느끼다 보니

2. 언어학 논리학 Base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압도적 수능 국어 전문가.

지문에서 근거 잡아 선지 판별하는 하나의 유용한 사고를 활용하지만 역시 비문학은 되지만, 문학은 뭔가 잘 안 되는...

3. 교육학 Base

- 이 부분은 일반인, 학생의 체감이 아닌 전문가들의 고민이니 넘기고...

과거 국어교육학은

1. 인문학 - 국어국문학
- +
2. 인문-철학 - 언어학 - 논리학
- +
3. 사회과학 - 교육학

의 교집합으로 보는 관점도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그 물줄기가 다릅니다.

문제는

평가원에 임용 될 수 밖에 없는 교수님들 대부분은 그것이 카르텔이 아니라.

'능력'으로 '선발'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같은 학번 대에서 국어교육에 있어서 천재 수준들이 모이니...

당연히 특정 대학 학사 - 석사 - 박사 출신들이 임용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치 '섬'처럼, 그 지적 성취가 파급이 어려운, 무엇보다, 일반 학원계에서는 전혀 그 흐름을 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인호 초격차 국어 파이널 | 3-4주차 문학 원론



15 수능에도 나오듯  
칸트를 통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확립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면,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직업을 결정할 때  
당연히 감정도 중요하지만,  
압도적으로 이성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학문적 성취,  
주장,  
사업적 판단,  
모두다 이성적 정보 처리 영역이고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이성적 정보 처리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반면,  
  
사랑,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감정  
당연히 감정적 정보 처리 영역이고,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 문학 - 감정적 정보 처리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문제 제기도 있지요.  
  
객관적이어야 하는 시험에서  
주관적인 감정을 측정한다고?  
그러니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칸트가 말했듯  
'주관적 보편성'  
이라는 모순같은 개념을 수능 문학에서는 묻습니다.

예를들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정(情)’이 넘치는 나라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恨)’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누가 알까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공동체에 들어와 구성원으로서  
살다보면, 어느순간, 말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  
정과 한에 대해서는 느끼고 공감하게 될겁니다.

‘높임법’도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어느 누구도 백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반말 막말 하는  
하는 젊은이를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하지만, 법적 처벌은 없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마치 이성처럼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을 공동체의 감각 = 공통감이라 하며,

평가원에서는 그것을 ‘**문학적 관습**’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지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길러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학.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조선시대 ‘매화’=‘절개’ 라는 **문학적 관습**이 있는 이유는.

그 시대 유교적 가치관 = 충, 효가 중요했고, 글을 배운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공부 대상은 유교 경전이고, 그 가치관이 있으니 뭘 봐도 유교적 가치관 전제로 보게 되고, 그러다보니, 눈이 깔려 있는데 유일하게, 혼자 고고하게 핀 아름다운 매화를 보면

지금의 우리는 그냥 **예쁘네!** 라고 느낄 것을

그들은 아름답다. 마치 **혼자 그것을 지키는 충신** 같은 **절개, 지조, 정절이 떠오르는 아름다움**이야.

이것이 바로 문학적 관습

논리적이라기 보다는 관습적

그래서 처음은 어렵지만 공감이 되는 순간 탁, 트이는 한 차원 높은 경지가 열리고,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시 제 경험 덧 붙이면,

원래 이과 머리를 가지고 있던 저는 언어영역 중에서도 문학이 제일 골치였습니다.

어떤 기준, 논리적 근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으로 정적분을 유도하는 사고 과정을 납득하지 못해 괴로움을 겪기도 했죠 (지금은 아주 완벽하고, 그 이유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 수능 출제, 교과서 집필을 하셔서 수능 본질을

아주 잘 풀어주시던 15년 전 메가스터디 유재원 수학 선생님.)

국어는

참 운이 좋게도...

군대 다녀오고 다니던 재종반의 4월 메가스터디 월례 모의고사에서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이 나왔고

나도 모르게 모의고사 치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멈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의고사고 수능이고 문학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수능/평가원의 문학 교육 목표

### 공감능력

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학 작품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문학 ‘서정’ 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 서정 장르 주제 = 정서 (감정,느낌,생각,태도,반응)  
← (문학적 관습) ← 상황/분위기
- 문장 구조 S O C Ad V & 수식, 반복, 강조
- 전체 구조, 시상전개방식, 특이한 소재, 제목 집중
- 문학적 관습, 전형적 주제 매우 중요
  - 개념어 문제 10% 내외
  - 내용-공감-감정 처리 문제 90%
  - 주제 관련 키워드 선지 정답확률 87%
 (14~20기출 14문항 중 11문항)
- 선지 판단은, 주제로 좁히고 필요시 발체득
  -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게 출제 목표



전체 구조 분석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원래 문학적 정보처리 틀이 없다면  
아예 접근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구일 뿐

실전에서는 가급적 수업/해설 흐름을 활용하시면 되고  
평소에 잘 안 잡히는 작품 분석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이 잡아드릴 텐데, 추후 작품  
분석하며 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한겨십팔곡**

구조	표면적 정보 ⇨ 이면적 정보		
	관직에 나감	자연에 은둔	정서
1수 축발	충효, 십재황황		
2수 4수 8수 16 수	공명이 늦음 부급등남. 여공불급		계교 못 이룰까
유지 / 전환	성주	강호 놀자 소락	방향 갈데 몰라
	출. 치군택민	처. 조월경은 명월군자 즐김 부귀 위기 빈천거	안빈낙도 부귀 바라지 않음
	행장유도	산지남 수지복	회보미방 왜 나더러 오라말라?
17 집약	성현 가신 길 만고 한가지 현	은	둘다랜춘 결국자연?

일반적으로(모두가 아닌, 일반적)  
서정장르의 전체 구조를 평가원에서는  
도입/축발 ⇨ 유지/전환 ⇨ 집약  
의 흐름으로 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에서  
이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읽어내야 합니다.

곧이 곧대로, 있는대로 읽는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은 초등학생도 하는데 그걸 왜  
물나요...

예를들면,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위와 같은 표면적 정보를 해석할 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나의 가슴은)  
=  
S  
(누구의 밤을 지키는)(약한 등불입니까)  
V

위와 같은 문장 구조 분석도 하지만,

표면적 정보	문학적 관습	이면적 정보
지시.사전적		함축.비유적
타고 남은 재가 다 시 기름이 됩니다		순환인식

예를들면, 타고 남은재. 더 이상 탈 수 없는데?  
다시 탈 수 있는 기름이 된다?  
아 순환되는 사고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표면적 정보	문학적 관습	이면적 정보
지시.사전적		함축.비유적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의지!

그칠 줄 모르고 타니,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칠 줄도 모르고 + 타오르니까!

표면적 정보	문학적 관습	이면적 정보
지시.사전적	➔	함축.비유적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의지 + 의지 강조

지키니까 의지

+

등불도 의지

그런데?

왜 약할까?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게 출제 목표**

즉, 강한 존재가 누구를 지키려는 것 보다  
약한 존재가 누구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든데  
그것을 하겠다니까  
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되죠.

결국?

아! 이 시는 화자가 무엇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려 하는 거구나!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정보 ⇨ 문학적 관습 ⇨ 이면적 의미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문학의 기본이고,  
연습 조금만 따라오면 누구든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쯤해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개념 공부는 안 하나요?  
합니다.

다만 그 중요도가 10년전 대비 매우 낮아  
내용-주제 관련 정답 선지 비율 90% 이상  
개념 관련 정답 선지 비율 10% 미만

즉, 개념 중심으로 작품 분석은 이제 수능 국어에서는  
절대 주된 접근법이 될 수 없으며

시간, 정확도, 피로도, 모든 것에서 손해입니다.

**4. 문학적 관습, 전형적 주제 매우 중요**

- 개념어 문제 10% 내외
  - 내용-공감-감정 처리 문제 90%
  - 주제 관련 키워드 선지 정답확률 87%
- (14~20기출 14문항 중 11문항)

**5. 선지 판단은, 주제로 좁히고 필요시 발체득**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게 출제 목표**

위와 같이.  
접근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암기-적용 해야합니다.

**문학'서정'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1. 서정 장르 주제 = 정서 (감정,느낌,생각,태도,반응)  
⇐ (문학적 관습) ⇐ 상황/분위기
2. 문장 구조 S O C Ad V & 수식, 반복, 강조
3. 전체 구조, 시상전개방식, 특이한 소재, 제목 집중
4. 문학적 관습, 전형적 주제 매우 중요
  - 개념어 문제 10% 내외
  - 내용-공감-감정 처리 문제 90%
  - 주제 관련 키워드 선지 정답확률 87%

(14~20기출 14문항 중 11문항)
5. 선지 판단은, 주제로 좁히고 필요시 발체득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게 출제 목표**

구체적인 접근은 앞서 풀어보신 지문으로 이어집니다.

어저어져 저기 가는 저 사람이  
 네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軍士逃亡) 네로고나  
 허리 위로 볼작시면 배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얼처지리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官) 옮겨 살면  
 천(賤)히 되기 예사거든 본토(本土)\* 군정(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손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 뿌리박아  
 칠팔월에 삼을 캐고 구시월에 돈피(獐皮)\* 잡아  
 공채(公債) 신역(身役)\*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  
 후한 값 받고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 도구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문

내신/시중 문제집 내용은 잊습니다.

어저어져 저기 가는 저 사람이

**도입/축발**

누군가를 봤군. 이라고 공감합니다.

네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軍士逃亡) 네로고나

**상황**

군사 도망... 탈영이네요?

허리 위로 볼작시면 배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상황.묘사**

**표면적 정보** 보니... 허리 위, 즉 윗 옷은 깃만 남고

허리 아래는 노닥노닥 누더기?

도망가는 군사가 거지 꼴이네?

아!

**이면적 정보** 아마 전쟁? 뭐 힘든 상황으로 도망가나  
 보구나.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표면적 정보** 구부령 할머니. 절름발이 다 이동중이고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얼처지리

**표면적 정보** <이면적 정보>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 같고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官) 옮겨 살면  
 천(賤)히 되기 예사거든 본토(本土)\* 군정(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손가

**표면적 정보** <이면적 정보>

C : 양반이 다른 동네 가면

E : 천해지니

P : 가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 뿌리박아  
 칠팔월에 삼을 캐고 구시월에 돈피(獐皮)\* 잡아  
 공채(公債) 신역(身役)\*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  
 후한 값 받고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 도구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문

**표면적 정보** <이면적 정보>

S : 해결 방법은?

S1 : 산삼도 캐고

S2 : 돈피도 잡고

S3 : 신역 갚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에서...

**+하향식**

근데 이런 상황 현상을 뭐라하더라?  
 삼정의 문란?!)

아! 정리하면

E : 어떤 이유로 이동을 하니

P C.이동하면 ⇨ E.양반도 천해지니

S1 삼캐고 S2 돈피잡아 해결하자!

1)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조선 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세가지 수취체제가 변질되어 부정부패로 나타난 현상. 전정 : 토지세-현재는 소득세. 군정 : 국방의 의무. 환정 : 국가 대출-역시 현재는 주로 소득세.

어와 생원인지 초관(哨官)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어와 : 아마 감탄사... 어이... 부르는 말.  
내 말씀 들으라고 하는 군요.  
그리고 생원,초관, 사회 초년생이 물정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 아마 자기 사정 이야기 하겠네?

이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소나  
우리 조상 남중 양반(南中兩班)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侍從臣)을 다니다가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나도 이 동네 사람이고 여기서 자랐으니 여기 일 안다!  
우리 조상님들 잘 나갔어!

남의 시기 참소 입어 전가사변(全家徙邊)한 후에  
극변방(極邊方)인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邑中)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有司) 장의(掌儀) चे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아마 우리 조상님 남의 모함 때문에 망했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  
대강 그런말 정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신처럼 완벽히 분석? 그럴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딱 이 정도 느낌)  
즉, 상황, 정서 중심 파악!

특히 주제 집중...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로써

**정서**

애슬프다

**상황**

나도 모함 당했구나

군사 강정(降定)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혈어나니  
좌우 전후 많은 가족 차차 충군(充軍) 되거고야  
누대봉사(累代奉祀)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어 있고

**상황**

그래서 벌 받고 있는데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三兩五錢) 돈피 두 장 의법(依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四十六兩)  
해마다 맞춰 무니 석송(石送)인들 당할소나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아! 드디어 삼정의 문란.  
친족들 도망가니,  
그걸 나한테 물라고 하니  
1명 분도 힘든데  
12명 분을 세금 물리면  
석송...그 시절의 이견희 형님도 못 당한다.  
그런말이군요.

약간 농사 전패하고 삼을 캐러 입산(入山)하여  
허항령(虛項嶺) 보태산(寶泰山)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 짝은 전혀 없고 오가일이 날 속인다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이제 S1 산삼캐러 갔는데  
산삼은 없고 산나물-두릅만 있네요.

하릴없이 헛되이 와서 팔구월 고추바람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鐵皮山行) 하려 하고  
백두산 등에 지고 강 아래로 내려가서  
짜리 꺾어 누대 치고 일갈나무로 모닥불 놓고  
하나님께 축수(祝手)하며 산신(山神)님께 발원(發願)하여  
물체줄을 갖춰 꿸고 사망(死亡) 일기 원하되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 기회 아니 불네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S2 돈피 잡으로 갔는데  
P 없고  
S 하느님께 로또 당첨 기도 했지만  
P 안 되네  
S 내 정성 부족...

**(중략)이전 주제 정서 + 상황**

도망 가는 갑민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누군가가  
E. 이동 PC.이동하면 ⇨ E.양반도 천해지니  
S1 삼캐고 S2 돈피잡아 해결하자!  
그에 대해서 나는  
S1삼 S2돈피 P없고 S하느님기원 P안 되네. 상황

(중략)

**(중략)**

중략 전후에서의 흐름이 바뀌거나  
정보 군집이 달라지니 꼭 집중하여 어떤 의도로  
나누었는지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님께 아뢰자니 구중천문(九重天門) 멀어 있고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P 이런 상황을

S 나라님께 아뢰자니

P 거리가 멀군요

**하향식**

지금이야 당장도 스마트폰 들고 국민신문고 올릴수도  
있지만, 과거는 한양 갈라면 한달이나...

요순(堯舜) 같은 우리 성주(聖主) 일월(日月)같이 밝으신들  
불점성화(不沾聖化) 이 극변(極邊)에 복분하(覆盆下)라 비칠소나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그러면 이 상황에 왕을 비판하나?

아니죠. 조선-유교적 가치관-총

요순 : 중국의 전설 속 위대한 황제 같고

일월같이 밝은 우리 왕.

왕은 못 건드리네요

그대 또한 ㉠ 내 말 들소 타관 소식(他官消息) 들어 보게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그런데 갑자기 다른 동네 이야기?

북청 부사(北靑府使) 누실런고 성명(姓名)은 잠깐 잊었네  
많은 군정 안보(安保)하고 백골 도망(白骨逃亡) 원통함 풀고  
각대 초관(各隊哨官) 여러 신역 대소민호(大小民戶) 나눠 걷으니  
많으면 닷 돈 풀수 적으면 서 돈이라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아!

북청 부사 누군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동네는 아까

12명 분을 나 한 명한테 물았는데?

여기는 그걸 나눠서 갚으니

돈이 얼마 안드네?

인읍(隣邑) 백성 이 말 듣고 남부여대(男負女戴) 모여드니  
군정 허오(軍丁虛伍) 없어지고 민호(民戶) 점점 늘어 간다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P 군정의 문란

S 북청 부사가 해결

E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구나!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을 군정 신역

북청 일례(北靑一例) 하여지라 영문(營門) 의송(議送) 정(呈)탄  
말가

본읍(本邑) 맡겨 제사(題辭) 맡아 본 관아에 부치온즉  
불문시비(不問是非) 올려 매고 형문(刑問) 한 번 맞았던 말가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P 군정의 문란

S 나는 이것을 민원 넣어 우리 갑산도 해결하자!

PE 민원 넣었더니 민원 넣었다고 형벌을 주네...

노답 상황

천신만고(千辛萬苦) 놓여나서 고향 생애 다 떨치고  
이웃 친구 하직(下直) 없이 부로휴유(扶老携幼) 한밤중에  
후치령 길 비켜 두고 금창령(金昌嶺)을 허위 넘어  
단천(端川)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聖大山)을 넘어서면  
북청 땅이 그 아닌가 거처호부(居處好否) 다 떨치고  
모든 가족(家屬) 안보하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  
내 곧 신역 이러하면 이친기묘(離親棄墓) 하올소나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결국 해법은?

북청으로 이동

모든 가족 같이 가야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애민(忠君愛民) 북청 원님 우리 고을 빌이시면\*  
군정도탄(軍丁塗炭) 그러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

**태도/반응**

하느님께 빌어서라도 해결하고 싶구나

임금님이 아셔서 해결해주셔야 할 텐데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  
이 영로(嶺路)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꺼치리라

**태도/반응**

너도 세상 물정 모르니 그런 소리 하지.

내 말 알 거다...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만나마 모자라리  
 일모충충(日暮怱怱) 갈 길 머니 하직하고 가노매라  
 -작자 미상, 「갑민가」-

정리하면?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갑민가

구조	표면적 정보 ⇨ (문학적관습) ⇨ 이면적 정보										
	화자⇨청자	상황/정서/구조									
중략 이전	생원/초관 ⇨갑민	주제 상황 E : 갑민 이동 P C.이동하면 E양반도 천민됨 S1 삼개고 S2 돈피 잡아 해결해봐									
	갑민 ⇨생원/초관	(세상물정 모르는 인간아) 우리집 배경 P 삼정의 문란. 12명 분 부과 S1삼 S2돈피 P없어 S하느님 로또 줌 P안 되네									
주제 + 구조 (중략 전) 상황 : E 이동 상황 (중략 후) 상황 : C 이동 이유											
중략 이후	갑민 ⇨생원/초관	P 삼정의 문란 S 나라님 상소하려 하니 P 멀구나 그런데!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0; font-size: 0.8em;">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5%;">P-S</th> <th style="width: 15%;">결국</th> </tr> <tr> <td>갑산 원님</td> <td>12명분을 1명에게</td> <td>백성 도망</td> </tr> <tr> <td>복청 부사</td> <td>부담을 나눠서</td> <td>백성 모임</td> </tr> </table>		P-S	결국	갑산 원님	12명분을 1명에게	백성 도망	복청 부사	부담을 나눠서	백성 모임
			P-S	결국							
갑산 원님	12명분을 1명에게	백성 도망									
복청 부사	부담을 나눠서	백성 모임									
P 삼정의 문란 S 복청처럼 우리도! 민원넣으니 P 그랬다고 형벌을 주네 S 그럼 복청으로 이동 해야지											

문제풀이 갑니다.

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제시된 개인의 개별적 경험이 ㉡에서 일반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선지 하나 하나 내용 하나 하나 따지는게 아니라

**주제/구조** 주제를 다시 보면

(중략 전) 이동 상황. 문제-해결-문제

(중략 후) 이동 이유. 문제-해결-문제-해결

**주제=구조+내용**

(중략 전)

**갑민** 이동 상황

**초관** 문제(C이동하면 E양반도 천해짐) 해결(S삼/돈피)

**갑민** P(삼정의 문란)-S(삼/돈피)-P(없어)-S(하느님기원)

(중략 후)

**갑민** P(삼정의 문란)-S(나라님)-P(떨어)-S(복청소식)

**갑민** P(삼정의 문란)-S(복청부사 해결)

**갑민** P(삼정의 문란)-S(갑산에 민원)-P(형벌)-S(이동)

즉, 개인의 경험의 일반화?가 주제라고 하기엔 조금...

- ② ㉠에서 제시된 개인의 고난이 ㉡을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2번 선지 정답!

**주제=구조+내용**

(중략 전)

**상황의 결과** 이동 상황 = **개인의 고난**

(중략 후)

**상황의 이유** P(삼정의 문란)-S(복청부사)

= **사회구조적 문제가 원인**

보이시나요?

역시 주제가 정답!

자! 여기서 문제.

만약 우리가 평소 하던대로 발췌독을 한다면

과연 정답은 특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서 제시된 개인의 개별적 경험이

갑민의 개인적 경험 당연히 있고

㉡에서 일반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일반화...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

위 구절이나

많은 군정 안보(安保)하고 백골 도망(白骨逃亡) 원통함 풀고

이런 구절을 보면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겪을 수 있는 문제임을  
일반화 한 것 아닐까요?

O X

판정해보시죠.

과연 정답 2번 하나로 특정 되나요?

아니면 1번도 위와 같이 논리적 근거 지문에서 잡아  
선지 판단하면 1번도 가능한 선지인가요?

③ ㉠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을,

없나요?

내 정성이 부족하지 사망 기회 아니 불네

위 구절 바탕으로 봐도 없나요?

㉡은 상대방의 과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없나요?

북청 일례(北靑一例) 하여지라 영문(營門) 의송(議送) 정(呈) 탄 말가  
본읍(本邑) 맡겨 제사(題辭) 말아 본 관아에 부치온즉  
불문시비(不門是非) 올려 매고 형문(刑問) 한 번 맞았던 말가

위 구절 봅시다.

비판 아닌가요?

④ ㉠은 상대방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은 상대방에 대해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도 판단해 볼까요?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로써  
이런 구절 보면, 과연 상대방 비판 없나요?

이 영로(嶺路)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치리라  
위로는 없으니 이 선지는 X

⑤ ㉠은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비애감을,

비애감? 있나요?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로써  
비애감 있나요?

㉡은 전해 들은 정보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을 담고 있다.

의구심이 있다면 가지도 않았겠죠?

믿으니 갔겠죠?

그러면 4~5선지는 확실히 out 이지만. 나머지

①②③ 선지 남습니다.

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서 제시된 개인의 개별적 경험이 ㉡에서 일반화되어 제  
시되고 있다.

② ㉠에서 제시된 개인의 고난이 ㉡을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였  
음이 드러나고 있다.

③ ㉠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을, ㉡은 상대방의 과오에 대  
한 비판을 담고 있다.

과연 논리적 사고

즉,

근거 지문

주장(판단) 선지 판별

하면, 정답 특정이 되나요?

## #2. '국어'문항 개발과 설계 의도 파악을 잘못된 일반인은?

문학은 감정  
논리가 아닌  
문학적 관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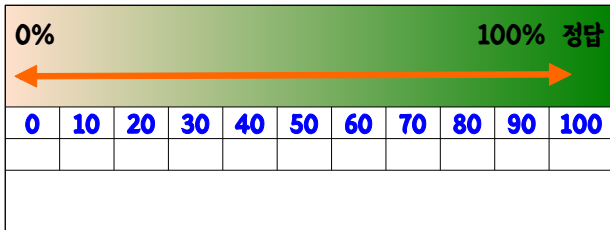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ㄱㄴㄷ합답형 문제가 OX 판별 문제이며 국어는 특히나, 출제 의도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 결과, 공감한 결과를 묻습니다.

결국!  
정보가치가 가장 높은  
주제 + 구조를 물을 수 밖에 없고  
글의 주제 - 구조 당연히 2번만 남습니다.

다만, 논리적 사고 틀이 편한 학생을 위해 도구 하나 드립니다.

### #3. 평가원의 문학 정답/감정 농도 스펙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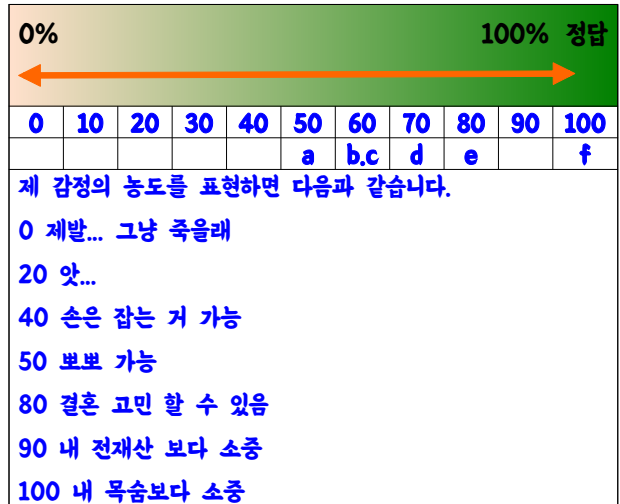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를들면, 제게 씬녀 a,b,c,d,e 5명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정이요. 가정. subjunctive mood)  
사실, 내 목숨보다 사랑한 전 여친 f가 있지만, 이미 차단 먹어서 연락 불가. 집 앞 찾아갔다간 경찰서 철경 철경



2)  
<https://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163295&no=15&weekday=tue>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압도적 수능 국어 전문가.



제가 감정을 비교해보니  
a는 제일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보보 이상은 가능합니다.

b는 보보는 가능, 결혼은 불가...하지만 a보다는 좋음  
c도 b랑 비슷하게 좋아하는 것 같음.

d는 b.c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데 결혼은 애매.

e는 아직 썸 단계지만 결혼 충분히 가능

#### <2021학년도 연애능력고사 대비 9월 모의평가>

1교시 ‘고백영역’

1. 이노쌤은 다음 중 어떤 분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이성이 아닌  
감정의 영역  
그래서 감정 정보처리 과목인 문학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농도 스펙트럼을 활용합니다.

백인호 초격차 국어 파일럿 | 3~4주차 문학 원론

잉? 정답 5번은 알겠는데  
목숨만큼 사랑한 f한테 고백 안 하나요?

네. 100% 정답은 그것일 수 있으나  
애초에 발문에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1. 이노쌤은 다음 중 어떤 분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가장 적절

옳고 그름이 아닌, '가장' '적절' 선지에 없는데 어떻게  
답으로 고릅니까요...

또한,  
물론 c,d 모두 좋아하고 e도 좋아하니  
누군가는 정답이 3개 아니냐는 말도 합니다.

양다리 L  
정답은 하나예요.  
⑤ e

이해 되시나요?  
문학 선지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문제 풀니다.

2. 이노쌤이 다음 중 어떤 분에게 고백을 할 때 가장  
그른 것은?

- ① a분께 고백
- ② b분께 고백
- ③ c분께 고백
- ④ d분께 고백
- ⑤ e분께 고백

(정답이 복수정답이에요. 답이 5개 다 되어요. 이리저리 마라...)  
정답은 좋아하긴 하지만 가장 덜 좋은 ①번 이겠죠.

[3~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지문을 위한 쉼도우 복싱이고 연구실 폰과 제  
폰으로 제가 혼자서 주고 받은 내용이니 오해는 nono...  
제발...)

3. 위의 대화 상대가 'e' 일 때, 이노쌤은 다음 중  
어떤 분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정답 ④번.  
아무리 내가 좋아도 5번은 이미 거절 의사 충분하죠?

⑤ 고른 사람 없죠?  
있다면 진짜 언능 사상 개조해야해요.  
그러다가 수능 점수 박살은 둘째치고 감빵입니다.

문학은 딱! 이런 느낌이라구요.

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 갑민가에서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구조는?

㉠=(중략 전) P.E 이동 상황

갑민 P.E 이동 상황

초관 문제(C이동하면 E양반도 천해짐) 해결(S삼/돈피)

갑민 P(삼정의 문란)-S(삼/돈피)-P(없어)-S(하느님기원)

㉡=(중략 후) C 이동 원인

갑민 P(삼정의 문란)-S(나라님)-P(멀어)-S(복청소식)

갑민 P(삼정의 문란)-S(복청부사 해결)

갑민 P(삼정의 문란)-S(갑산에 민원)-P(형벌)-S(이동)

② ㉠에서 제시된 개인의 고난이 ㉡을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답 2번 짝.

하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 #4. 평가원의 정보처리 내용 + 구조

2. 다음은 윗글에 대한 어느 학생의 '수행 평가지'이다. ㉠~㉢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행 가평지]

「갑민가」는 갑산에 살았던 민중의 노래로, 나는 작가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중에서 대화 형식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감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원과 갑민의 대화 속에 드러난 각 각의 입장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생원	갑민
주장	갑민은 갑산에 머물러야 한다.	나는 갑산을 떠나야 한다.
구조	-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노력해 본 경험상 갑산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구조 : 문제점 P - S	-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노력해 본 경험상 갑산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구조 : 문제점 P - S
근거	- 갑산을 떠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구조 : 문제점 P	-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구조 : 문제점 P - S
구조	- 갑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구조 : 문제점P-S해결	- 부청 지역은 갑산과 다른 상황이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 : 문제점 P - S

① ㉠: 타관으로 옮겨 살면 천한 신세가 되기 쉽다.

② ㉡: 인삼을 캐고 돈피를 잡아 신역을 갖고 살면 된다.

초관 문제(C이동하면 E양반도 천해짐) 해결(S삼/돈피)

정보가치 높은 내용 + 구조 정확

③ ㉢: 친족들의 신역도 책임져야 해서 돈을 남길 수 없고 인삼은 찾기 어렵다.

갑민 P(삼정의 문란)-S(삼/돈피)-P(없어)-S(하느님기원)

⑤ ㉤: 부사님이 선정을 베풀고 있는 부청은 백성들이 살기에 좋다.

갑민 P(삼정의 문란)-S(복청부사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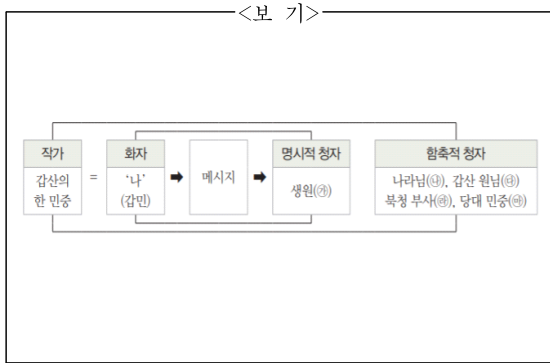
④ ㉣: 이웃에 알리지 않고 가족들과 단친 땅으로 떠나려고 했으나 불가능했다.

갑민 P(삼정의 문란)-S(갑산에 민원)-P(형벌)-S(이동)

이동하고 있는데? 불가능? 정답!

정답 4번 짝.

3. 윗글의 소통 구조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는 행위가 서로 다른 ㉡와 ㉢의 대조를 통해 ㉣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작가는 화자가 ㉡에게 소원을 비는 방식을 통해 ㉡와 같은 존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③ 작가는 미래에 ㉡가 감산을 떠나려는 자신의 현재 생각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 ④ 작가는 ㉡가 ㉢에 속하는 인물임을 인식하며 이들의 삶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작가는 ㉢ 중에 북청으로 옮겨 간 사람들을 바탕으로 ㉡에 대한 불만을 자신만 가진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소통 구조 개념인데, 문‘학’에서는 중요하지만 수능 문학에서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1번 2번 문항은 주제/구조로 정답이 바로 나왔다면  
3번 문제는 좀 더 세부내용  
하지만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조와 함께 처리했다면  
딱 집중이 되면서

좁히고 발췌독이 될거예요!

- ② 작가는 화자가 ㉡에게 소원을 비는 방식을 통해 ㉡와 같은 존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갑민** P(삼정의 문란)-S(삼/돈피)-P(없어)-S(하느님기원)  
소원은 하느님께 빌고 있네요.  
정답! 끝!

추가로 정답 스펙트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학생은 이렇게 물어볼겁니다.

- ① 작가는 행위가 서로 다른 ㉡와 ㉢의 대조를 통해 ㉣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생님 이 선지는  
‘한계’라고 했으니 ‘비판’되는거고  
그러면

1번 문제

- ③ ㉠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을, ㉣은 상대방의 과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비판 있지 않나요?

- ② ㉠에서 제시된 개인의 고난이 ㉣을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답이라고 하신 2번도 사회 구조적 문제면  
비판 있는거 아닌가요?

이럴 때 유용한 사고가 바로 아래의 정답 스펙트럼

0%	100% 정답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p><b>100% or 0% 정답 = 직접 명시</b> <b>나머지는?</b> <b>문학적 관습으로, 혹은 우리의 직관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b></p>										

주제와 구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즉, 갑민가에서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구조는?

㉠=(중략 전) P.E 이동 상황

갑민 P.E 이동 상황

초관 문제(C이동하면 E양반도 천해짐) 해결(S삼/돈피)

갑민 P(삼정의 문란)-S(삼/돈피)-P(없어)-S(하느님기원)

㉡=(중략 후) C 이동 원인

갑민 P(삼정의 문란)-S(나라님)-P(멀어)-S(북청소식)

갑민 P(삼정의 문란)-S(북청부사 해결)

갑민 P(삼정의 문란)-S(갑산에 민원)-P(형벌)-S(이동)

100%정답 = 직접 드러남 = 직접 제시 = 명시

삼정의 문란 상황

개인의 고난 경험 상황

100%는 아니지만, 80~90%정답

아래의 지문 명시 내용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

	P-S	결국
갑산 원님	12명분을 1명에게	백성 도망
북청 부사	부담을 나눠서	백성 모임

삼정 문란의 원인은 원님/부사와 같은 국가권력 집행자, 즉, 국가적 차원이 겠구나  
혹은, 사회 구조적 문제 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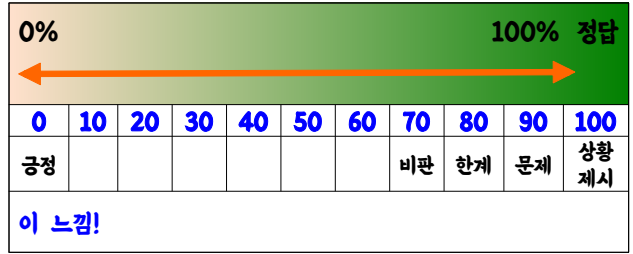
70~80%정답

위의 내용에서 더 추론/떨어지는 내용  
그러면, 한계 지적이겠군

60~70%정답

한계? 그러면 비판도 가능한 것 아니야?

이해 되시나요?



따라서,

상황제시 + 문제 =>

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에서 제시된 개인의 고난이 ㉡을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을, ㉡은 상대방의 과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더 멀리 있는 '비판'보다는

'상황→문제제기' 인 ②번이 가장 적절

3. 윗글의 소통 구조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는 행위가 서로 다른 ㉠과 ㉡의 대조를 통해 ㉠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계' 80% 정도 맞음.

단, 개념적으로

직접 드러남 = 직접 제시 = 명시

vs

우회 = 간접제시

와 같은 개념어로 쓰일 수 있으나  
개념 접근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주제/구조 중심 접근 후

좁히고 발췌독 때 보조적 수단으로 개념을 활용합니다.

2021학년도 수특 문학 고전시가 65~67p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집장 군노(執杖軍奴) 거동(擧動)을 바라  
 춘향을 동틀에다 쫓그라니 올려 매고  
 형장(刑杖)을 한 아픔을 더럽다 덤석 안아다가  
 [A] 춘향의 앞에다가 **좌르르** 펠뜨리고  
 좌우 나졸들이 집장(執杖) 배립(排立)하여  
 분부 들주어라 여쭙어라  
 바로바로 아뢰 말씀 없소 사또 안전(案前)에 죽여만 주오

집장 군노 거동을 바라  
 형장 하나를 고르면서 이놈 집어 **느긋느긋** 저놈 집어 **는**  
 [B] **칭는칭**  
 춘향이를 결눈을 주며 저 다리 들어라  
 골(骨) 부러질라 눈 감아라 보지를 마라  
 나 죽은들 너 매우 치라느냐 걱정을 말고 근심을 마라

집장 군노 거동을 바라  
 형장 하나를 골라 쥐고 선뜻 들고 내닫는 형상(形狀)  
 지옥문 지키었던 사자(使者)가 첩퇴를 들어 메고 내닫는  
 [C] 형상

**좁은 골에 벼락치듯 너른 들에 번개하듯**  
 십 리만치 물러섰다가 오 리만치 달려 들어와서  
 하나를 드럽다 딱 부치니 아이구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오  
 허허 야 년아 말 듣거라  
 ㉠ **꽃은 피었다가 저질로 지고 / 잎은 돋았다가 다 뚝뚝 떨어**  
 [A] **허허한치 광풍(狂風)의 낙엽이 되어 / 청버들을 좌르르**  
 훑어  
 ㉡ **맑고 맑은 구곡지수(九曲之水)에다가 풍기덩실 지두덩실**  
 흐늘거려 떠나려 가는구나 / 말이 못된 네로구나

- 작자 미상, 「집장가(執杖歌)」 -

(나)

형장(刑杖) 태장(笞杖) 삼(三)모진 도리매로 / 하날 치고  
 짐작할까 돌을 치고 그만둘까  
 삼십도(三十度)에 맹장(猛杖)하니 일촌간장(一寸肝藏) 다  
 녹는다

걸렸구나 걸렸구나 일등 춘향(一等春香)이 걸렸구나  
**사또 분부 지엄하니 인정일랑 두지 마라**  
 국곡 투식(國穀偷食)하였느냐 엄형 중치(嚴刑重治)는 무삼  
 일고  
 살인 도모(殺人圖謀)하였느냐 항쇄족쇄(項鎖足鎖)는 무삼  
 일고  
 관전 발악(官前發惡)하였느냐 옥골 최심(玉骨摧甚)은 무삼  
 일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압도적 수능 국어 전문가.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 어미가 불쌍하다**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옥 모퉁이로 돌아들며  
**몹쓸 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  
**아이구 어머니 그 말씀 마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오**  
 옥중에서 죽을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싫소

새벽 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한양성내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하여 주렴  
 날 죽이오 날 죽이오 신관 사또야 날 죽이오  
 날 살리오 날 살리오 한양 낭군님 날 살리오  
 옥 같은 정갱이에 유혈이 낭자하니 속절없이 나 죽겠네  
 [D] 옥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 방울 떨어진다  
 석벽 강상(石壁江上) 찬바람은 살 쏘듯이 드리블고  
 ㉠ **벼룩 빈대 바구미는 예도 물고 제도 뜰네**  
 ㉡ **석벽(石壁)에 섰는 매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도화 유수(桃花流水) 묘연(渺然)히 뚝 떨어져 굵이 굵이 굵  
 이 솟아난다

- 작자 미상, 「형장가(刑杖歌)」 -

1. (가)의 [A]~[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춘향을 매질하기 위해 준비하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매질을 당할 춘향을 걱정하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C]에는 춘향을 매질하고 있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A]~[C]는 형을 집행하는 장소에서의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춘향의 내적 갈등을, [B], [C]는 집장 군노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2. (나)의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날 죽이오’와 ‘날 살리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춘향의 애끓는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유혈이 낭자’한 춘향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말을 삼입하여 춘향의 비극적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도련님’과 함께 ‘한양성내’로 가는 미래를 상상하는 춘향의 모습을 묘사하여 춘향의 낙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옥 같은 정갱이’, ‘옥 같은 얼굴’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신관 사또의 춘향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새벽 서리 찬바람’과 ‘석벽 강상 찬바람’이라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극복해 내고자 하는 춘향의 결의를 강조하고 있다.

백인호 초격차 국어 파일 | 3-4주차 문학 원론



3. <보기>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집장가」와 「형장가」는 판소리 「춘향가」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다. 「집장가」는 신관사또의 수청을 듣지 않는 춘향이 매질을 당하게 되는 대목을 엮은 것이고, 「형장가」는 춘향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을 엮은 것으로, 신관 사또의 횡포와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정절을 강조하여 보여 준다.

- ① ㉠ : 신관 사또의 권력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 ② ㉡ : 춘향은 신관 사또의 횡포로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 ③ ㉢ :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정절은 가치 있는 것이다.
- ④ ㉣ : 신관 사또의 무자비한 횡포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 ⑤ ㉤ : 춘향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몽룡과의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4. '이본교육'과 '비평교육' 그리고 '상호텍스트성'

#5. 20수능vs21수능 출제교수집단

현 수능은 2015개정교육과정 기반의 시험으로 특히, 내년부터는 원래 문이과 통합의 신 수능 체제로 변화를 예고했었기 때문에 출제 교수 팀이 새로 꾸려집니다.

2015개정교육과정 당시 이본교육과 비평교육이 상당히 학계의 이슈였고, 그 흐름은 잠시 17~20 수능에서 영향력이 낮아졌다가

그 당시 개정교육과정에 영향을 크게 준 소장학자들이 대거 평가원 연구 교수로 임용되며, 다시 올해 내년 수능 흐름에서는 이본교육, 비평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사실 별 것은 없습니다.

텍스트의 비교에서 오는 작품 감상 과정에서 교육적 목표 달성이 더 의미있어진다는 연구에 따른 것인데, 다만, 이러한 배경 없는 접근 과정에서 신유형이 나오면 당황하는 학생들 특성상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수업 내용, 배운대로 잘 따라오면 됩니다. 다시 기억할 것은

1. 주제-정서를 잡아라 (상황/분위기 ⇨ 문학적 관습)

2. 문장/전체 구조를 잡아라

3. 문학적 관습 유의

4. 특이한 소재 배경 서술방식. 개념.

5. 주제-구조로 좁히고 세부내용은 필요시 발췌독 하라

6. 나라면 왜 이렇게 썼을까? 공감하라

이 접근법을 바탕으로 집장가, 주제-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집장가(춘향전 이본)**

구조	표면적 정보 ⇨ (문학적관습) ⇨ 이면적 정보	
	화자⇨청자	상황/정서/구조
A 장면	사또 : 수청 춘향 : 죽여	춘향 맞기 전 장면 ⇨Q.춘향은 왜 수청 거부했을까?
B 장면	집장 : 걱정 춘향 : 때려	춘향 맞기 직전 장면 ⇨Q.집장군노는 왜 느긋느긋 왜 이런 저런 말 했을까? ⇨Q.춘향은 왜 근심말라 했을까?
C 장면	집장 : 때림 춘향 : 아파!	춘향 맞는 장면 묘사
	집장⇨춘향	허허 야 년아 말 듣거라
㉠ ㉡ ㉢	집장⇨춘향	⇨Q.집장군노는 왜 춘향에게 ㉠ ㉡ ㉢ 대사를 했을까?
몇백년 된 고전에서도 공감한다? 공감능력 100점. 너에게 100점 준다 feat. 평가원 출제자		
춘향 맞는 장면 장면	서사특징 인물 사건 갈등 인물내면심리	구조 A ⇨ B ⇨ C ⇨ ㉠㉡㉢  내용 춘향 맞기 전, 직전, 중, 후 대화

이제 자세히 읽겠습니다.

집장 군노(執杖軍奴) 거동(擧動)을 바라  
 춘향을 동틀에다 쫓그라니 올려 매고  
 형장(刑杖)을 한 이름을 되립다 덤석 안아다가  
 춘향의 앞에다가 **좌르르** 펄뜨리고  
 좌우 나졸들이 집장(執杖) 배립(排立)하여  
 분부 들주어라 여쭙어라  
 바로바로 아뢰 말씀 없소 사또 안진(案前)에 죽여만 주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 한 대목  
 단, 특이한 점은 원래 '서사장르'인 춘향전의 한 대목인  
 만큼, 서사적 특징이 있습니다.

**표면적 정보**

**장면** : 춘향 매맞기 전  
**반응** 춘향 : 죽여만 주오

**이면적 정보**

사또 : 수청 들어!  
 라고 했겠죠?  
 그러니 춘향은 거절의 뜻으로 죽이라 했을텐데.

그럼 질문.

Q1. 춘향은 자신을 왜 죽이라 했을까요?

- ① 있는 그대로 진짜 죽이라고 한 것임
- ② 이도령이 돌아와서 도와줄 거라서
- ③ 자신의 사랑,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① 있는 그대로 진짜 죽이라고 한 것임  
 < 이 선지는 정말 아니라는 것 이젠 다 알죠?  
 문학이, 감정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있는 그대로 봐서  
 해결됩니다...>

- ② 이도령이 돌아와서 도와줄 거라서
  - ③ 자신의 사랑,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 < 판단 잘 안 되는 이유. 그게 우리가 모쪼록 이유

Q2. 춘향을 찾아온 이도령을 옥에 갇힌 춘향에게  
 데려다주며, 춘향 어미는 옥에 갇혀 있는 춘향에게  
 말합니다. “서방인지 남방인지 어디 거지새끼 하나  
 찾아왔다” 그리고 이도령은 ‘우리집이 모함받아 망해서

나 거지 되었다’라고 춘향에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목숨을  
 빼앗기기 직전 까지 수청을 거부’하고, 이도령은  
 암행어사 출도를 하며 춘향을 구해냅니다.

Q1. 춘향은 자신을 왜 죽이라 했을까요?

- ① 있는 그대로 진짜 죽이라고 한 것임
- ② 이도령이 돌아와서 도와줄 거라서
- ③ 자신의 사랑,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네 ③번이죠

②번이었다면, 거지가 되어 찾아온 이도령을 보고  
 마음을 돌렸어야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춘향은  
 ③ 자신의 사랑,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수청을 거부합니다.3)

문학 작품에서의 공감능력이란 이런 능력이고,  
 다들 이렇게 문학으로 연애를 배워 모쪼 탈출 하시길.

집장 군노 거동을 바라  
 형장 하나를 고르면서 이놈 집어 **느긋느긋** 저놈 집어 **느  
 청는청**  
 춘향이를 걸 눈을 주며 저 다리 들어라  
 골(骨) 부러질라 눈 감아라 보지를 마라  
 나 죽은들 너 매우 치라느냐 걱정을 말고 근심을 마라

**표면적 정보**

**장면** : 춘향 매맞기 직전  
**반응** 집장군노 : 느긋느긋 능청능청  
 춘향 : 걱정 말고 근심말고 처라

3) 이노잰의 생각. 이래서 이도령이 나쁜 놈임. 아니 사랑하는 여  
 자가 고초를 겪으면 구해주기부터 해야지, 거지라고 자기  
 망했다고 춘향의 사랑을 시험하나? 에효...쓰르그. 반면 춘향  
 은? 진짜 멧집 뽀뽀. 왜?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히 살고 있잖아. 멧져! 춘향!

이면적 정보

Q3. 왜 집장군노는 느긋느긋, 능청능청 + 춘향에게 이런 저런 말을 했을까요?

- ① 춘향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사또의 횡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신의 업무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라 내적 갈등이 생겨서
- ② 아무 이유 없이
- ③ 춘향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싶어서, 돈을 받고 매를 살살 때려줄려고

물론 3가지 모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관습, 직관으로 보면 ①쪽으로...

집장 군노 거동을 보라  
 형장 하나를 골라 쥐고 선뜻 들고 내닫는 형상(形狀)  
 지옥문 지키었던 사자(使者)가 철퇴를 들어 메고 내닫는 형상  
 좁은 골에 벼락치듯 너른 들에 번개하듯  
 십 리만치 물러섰다가 오 리만치 달려 들어와서  
 하나를 드립다 딱 부치니 아이구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오

표면적 정보

장면 : 춘향 매맞는 장면

반응 춘향 : 와! 너무 아파!

이면적 정보

당연히 춘향은 맞아 본 적이 없으니, 때리라 했다가 너무 아프니 저렇게 호들갑 떨었겠죠

허허 야 년아 말 듣거라

표면적 정보

장면 : 춘향 매맞은 후

반응 집장군노 : 춘향에게 해줄 말이 있군요

㉠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 잎은 돋았다가 다 똑똑 떨어져서  
 ㉡ 허허한치 광풍(狂風)의 낙엽이 되어 / 청버들을 좌르르 훑어  
 ㉢ 맑고 맑은 구곡지수(九曲之水)에다가 풍기덩실 지두덩실 흐늘거려 떠나려 가는구나 / 말이 못된 네로구나

표면적 정보

장면 : 꽃? 잎? 낙엽? 뭘소리야???

그런데 말이 못된 네로구나? 뭐지?

이면적 정보

Q4. 갑자기 집장군노가 꽃은 왜 이야기 할까요?

- ① 너무 아파하는 춘향에게, 인생이 원래 그런거라 알려주고 싶어서
- ② 사또의 권력이 약해질거라 생각해서

①입니다.

이유는 마지막 대사에서도 보이듯

너무 아파하는 춘향에게 집장 군노는 인생은 원래 그래

㉠너가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지고

너가 앞으로 듣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지고 낙엽된다

그렇게 흘러 흘러

㉢물에 흘러 떠나가는게

인생이란다

라고 말해주니

춘향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니

말이 못된 네로구나  
라고 받아줬겠죠?

**‘나라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상상+공감하기**

원래 전체 지문 읽고 풀어야 하는데, 초반 수업이라 바로 문제 갑니다.

1. (가)의 [A]~[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춘향을 매질하기 위해 준비하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매질을 당할 춘향을 걱정하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C]에는 춘향을 매질하고 있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A]~[C]는 형을 집행하는 장소에서의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춘향의 내적 갈등을, [B], [C]는 집장 군노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집장가(춘향전 이본)**

구조	표면적 정보 ⇨ (문학적관습) ⇨ 이면적 정보	
	화자⇨청자	상황/정서/구조
A 장면	사또 : 수청 춘향 : 죽여	춘향 맞기 전 장면 ⇨Q.춘향은 왜 수청 거부했을까?
B 장면	집장 : 걱정 춘향 : 때려	춘향 맞기 직전 장면 ⇨Q.집장군노는 왜 느긋느긋 왜 이런 저런 말 했을까? ⇨Q.춘향은 왜 근심말라 했을까?
C 장면	집장 : 때림 춘향 : 아파!	춘향 맞는 장면 묘사
	집장→춘향	허허 야 년아 말 듣거라
㉠ ㉡ ㉢	집장→춘향	⇨Q.집장군노는 왜 춘향에게 ㉠ ㉡ ㉢ 대사를 했을까?
몇백년 된 고전에서도 공감한다? 공감능력 100점. 너에게 100점 준다 feat. 평가원 출제자		
춘향 맞는 장면 장면	서사특징 인물 사건 갈등 인물내면심리	구조 A ⇨ B ⇨ C ⇨ ㉠㉡㉢  내용 춘향 맞기 전, 직전, 중, 후 대화

① [A]에는 춘향을 매질하기 위해 준비하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구조/장면** 바로 보이네요. 춘향 매맞기 전.

② [B]에는 매질을 당할 춘향을 걱정하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구조/장면**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네. 걱정했으니 바로 때리지 못하고 이런 저런 말은 했겠조

③ [C]에는 춘향을 매질하고 있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구조/장면** 춘향 매맞기 중

④ [A]~[C]는 형을 집행하는 장소에서의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다.

**구조/장면** 전체 주제 흐름

⑤ [A]는 춘향의 내적 갈등을, [B], [C]는 집장 군노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구조/장면** 음?!

**표면적 정보⇨이면적 정보**

Q1. 춘향은 자신을 왜 죽이라 했을까요?

③ 자신의 사랑,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즉, 자신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합니다.

**춘향의 내면심리**

내적갈등? 없조!

반면

**집장군노의 내면심리**

내적갈등? 있조!

그러니 바로 못 때리고 느긋느긋...하면서 춘향에게 말도 걸고...

이렇게 생각하는게 어렵다구요?

해야합니다. 왜요?

ㅁㅅㅌㅊ



그걸 꼭 말해야 하시겠어요? (tlqkf...)

(나) 작품 갑니다.

형장(刑杖) 태장(笞杖) 삼(三)모진 도리매로 / 하늘 치고  
 짐작할까 돌을 치고 그만둘까  
 삼십도(三十度)에 맹장(猛杖)하니 일촌간장(一寸肝藏) 다  
 녹는다  
 걸렸구나 걸렸구나 일등 춘향(一等春香)이 걸렸구나

춘향이 맞는 장면

**사포 분부 지엄하니 인정일랑 두지 마라**  
 국곡 투식(國穀偷食)하였느냐 엄형 중치(嚴刑重治)는 무삼  
 일고  
 살인 도모(殺人圖謀)하였느냐 항쇄족쇄(項鎖足鎖)는 무삼  
 일고  
 관전 발악(官前發惡)하였느냐 옥골 최심(玉骨摧甚)은 무삼  
 일고

고전시가. 소리나는 대로 읽고 + 한자어 + 문맥 추론

국곡투식?

아! 그 시절 세금은 곡식.

국곡=지금의 국고=세금

그걸 투식? 먹었어? 아 세금을 먹었어.

엄형중치. 엄하게 형벌주고, 무겁게 다스린다?

춘향이는 단지 수청거부인데  
너무 심하게 형벌주고 다스린다는 말이구나!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 어머니가 불쌍하다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옥 모퉁이로 돌아들며  
 뭍쓸 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  
 아이구 어머니 그 말씀 마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오  
 옥중에서 죽을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싫소

표면적 정보

춘향과 춘향 어머니의 대사. 대립 갈등?

이면적 정보

춘향 엄마 내면 심리

딸내미가 저렇게 맞다 죽으면 어찌누 ㅠ  
 춘향아... 너 죽으면 나 못 산다.  
 너도 살아야지.  
 수청 듣자...

춘향 내면 심리

저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수청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감정에 충실하게 살거예요.  
 죽더라도 그렇게 살거예요.4)

이제 D 장면

재벽 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한양성내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하여 주렴

갑자기 뭘 기러기?



넵. 지금이야 트위터가 있지만

예전에는 기러기...

전해줬을까요?

어쩔 수 없으니 불가능해도 기원하는 거죠 ㅠ

소통의지. 매개체.

4) 춘향이가 나를 울리는구나... 자신의 사랑하는 감정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는 춘향이 존나 멋져 ㅠ

날 죽이오 날 죽이오 신관 사또야 날 죽이오  
 날 살리오 날 살리오 한양 낭군님 날 살리오

**표면적 정보**

대조 보이죠?  
 신관사또 - 날 죽이는 놈  
 한양낭군(이도령) - 날 살릴 사람

옥 같은 정강이에 유혈이 낭자하니 속절없이 나 죽겠네  
 옥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 방울 떨어진다  
 석벽 강상(石壁江上) 찬바람은 살 쏘듯이 드리블고  
 ㉠ 벼룩 빈대 바구미는 예도 물고 제도 뜯네

**표면적 정보**

아마 춘향이가 매 맞고 옥에 있는 모습 묘사 같고

**이면적 정보**

㉠은 옥이니까 당연히 벼룩 빈대 같은 해충들이 물겠죠

㉠ 석벽(石壁)에 섰는 매화 나뭇잎 보고 반기는 듯  
 도화 유수(桃花流水) 묘연(渺然)히 뚝 떨어져 굽이 굽이 굽이 솟아난다

**표면적 정보**

갑자기 분위기 매화?

**이면적 정보**

기억나죠?  
 문학적 관습.  
 조선시대 매화 = 절개  
 그러네. 춘향이 내면심리구나.

정리하면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형장가(춘향전 이본)**

구조	표면적 정보 ⇨ (문학적관습) ⇨ 이면적 정보	
	화자⇨청자	상황/정서/구조
맞는 장면		춘향 한 대 두 대 30대 맞는 장면
서술자 평가		국고를 빼들린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국가 모독도 아닌데 너무 심한데? 그걸 봐야 하는 춘향 어미 불쌍
대화	춘향어미 춘향	수청 듣자. 그러다 너 죽어 저 사랑 못 버려요. 차라리 죽어
D	춘향 내면심리	도련님께 소통이지 - 기러기 맞는데 아프고 감옥이 힘든데 그래도 나는 매화 절개 지킨다

주제 = 정보가치 높은 내용 + 구조  
 feat. 평가원 출제자

2. (나)의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날 죽이오’와 ‘날 살리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춘향의 애끓는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서사장르 특징. 내면심리**

맞죠. 춘향의 내면심리. 애끓죠

② ‘유혈이 낭자’한 춘향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말을 삼입하여 춘향의 비극적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서사장르 특징. 내면심리**

춘향의 상황.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춘향의 내면심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D인데? 틀림!

잠깐. 여기서 ‘유혈이 낭자’한 / 춘향의 모습 /  
 지켜보는 사람들의 말 / 삼입  
 내용 확인 안 하나구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단어 유무만 보면 되는 그런걸 고3 수능에? 왜 냅니까... 언제적 유형을 아직도...

③ '도련님'과 함께 '한양성내'로 가는 미래를 상상하는 춘향의 모습을 묘사하여 춘향의 낙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서정장르 특징. 상황/분위기

서사장르 특징. 내면심리

지금이 낙관? 절망. 비극이죠. 틀림!  
그리고 아까...

Q1. 춘향은 자신을 왜 죽이라 했을까요?

- ① 있는 그대로 진짜 죽이라고 한 것임
- ② 이도령이 돌아와서 도와줄 거라서
- ③ 자신의 사랑,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 ④ 선지가 정답인 이유 기억나죠?

④ '옥 같은 정갱이', '옥 같은 얼굴'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신관 사또의 춘향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서사장르 특징. 내면심리

사또가 춘향을 사랑?  
춘향이 내면 심리 장면이래두요. 틀림!

⑤ '새벽 서리 찬바람'과 '석벽 강상 찬바람'이라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극복해 내고자 하는 춘향의 결의를 강조하고 있다.

서사장르 특징. 내면심리

극복의지?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 아닌가요? 틀림!

이렇게 주제 구조 잡아갑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집장가」와 「형장가」는 판소리 「춘향가」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다. 「집장가」는 신관사또의 수청을 듣지 않는 춘향이 매질을 당하게 되는 대목을 엮은 것이고, 「형장가」는 춘향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을 엮은 것으로, 신관 사또의 횡포와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정절을 강조하여 보여 준다.

- ① ㉠: 신관 사또의 권력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 ② ㉡: 춘향은 신관 사또의 횡포로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 ③ ㉢: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정절은 가치 있는 것이다..

기억나죠?

㉠㉡㉢ 모두

Q4. 갑자기 집장군노가 꽃은 왜 이야기 할까요?

- ① 너무 아파하는 춘향에게, 인생이 원래 그런거라 알려주고 싶어서
- ② 사또의 권력이 약해질거라 생각해서

아파하는 춘향에게 집장군노가 인생은 원래 그래라고 해주는 말이라고.

당연히 글의 주제? 2번 정답.

- ④ ㉡: 신관 사또의 무자비한 횡포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 ⑤ ㉢: 춘향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몽룡과의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설명 덧붙입니다.

잘못된 접근법

- 1. 오히려 작품 전체 해석을 잘못 적용하면
- +
- 2. 지문근거 판단하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틀립니다!

㉠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 잎은 돋았다가 다 푹푹 떨어져서

① ㉠: 신관 사또의 권력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틀리나요?



㉔ 맑고 맑은 구곡지수(九曲之水)에다가 풍기덩실 지두덩실

③ ㉔ :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정절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글 전체 작품에 대한 지식 연결하면 틀리나요?

㉕ 벼룩 빈대 바구미는 예도 물고 제도 뜯네

④ ㉕ : 신관 사또의 무자비한 횡포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이다.  
이 선지는?

㉖ 석벽(石壁)에 섰는 매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도화 유수(桃花流水) 묘연(渺然)히 뚝 떨어져 굽이 굽이 굽이 솟  
아난다

⑤ ㉖ : 춘향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몽룡과의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의 절개 = 매화 덕에  
도화? 복숭아꽃? 이상향? 무릉도원? 어사화?  
연결하면 5번선지 틀리나요?

수능 국어 의사소통 능력  
= 감정-공감능력 + 이성-독서능력  
feat. 평가원

하늬를 드립다 딱 부치니 아이구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오  
허허 야 년아 말 듣거라  
①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 잎은 돋았다가 다 뚝뚝 떨어  
어져서  
㉗ 허허한치 광풍(狂風)의 낙엽이 되어 / 청버들을 좌르르  
훑어  
㉘ 맑고 맑은 구곡지수(九曲之水)에다가 풍기덩실 지두덩실  
호늘거려 떠나라 가는구나 / 말이 못된 네로구나

① ㉗ : 신관 사또의 권력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맥락상

맞아서 아파하는 춘향에게 해주는 말  
+

이도령은 울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면

① 사또 권력도 약해질거야

or

② 인생이 원래 그렇단다 춘향아  
둘 중 뭐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③ ㉘ :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정절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게 갑자기 나와야할까요?

② ㉘ : 춘향은 신관 사또의 횡포로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너무 주제넘어요. 당연히 2번 정답.

㉘은 옥이니까 당연히 벼룩 빈대 같은 해충들이 물겠조

④ ㉘ : 신관 사또의 무자비한 횡포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이다.

서사장르 특징. 내면심리

춘향의 내면심리 장면인데, 사또의 횡포와 사람들의  
괴로움은 춘향의 생각이 아니죠.

춘향은 지금 사랑이 중요합니다.

⑤ ㉘ : 춘향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몽룡과의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서사장르 특징. 내면심리

Q1. 춘향은 자신을 왜 죽이라 했을까요?

① 있는 그대로 진짜 죽이라고 한 것임

② 이도령이 돌아와서 도와줄 거라서

③ 자신의 사랑,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 기억하시죠? 이유도?

바람. 사랑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나의 감정. 나의 사랑 때문에 정절=매화  
지키려는 것이고, 그러니 수청을 거부할 뿐입니다.

뭔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진다' 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성이 아닌 감정

다음은 본 교재 38페이지 내용으로 갑니다.

2013학년도 6월 모의고사 13~18번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무뚝기 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닳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주막(繡幕) 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뒤라져 찾아갈꼬. 가져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낮같이 만드소서.

건군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걷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입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썰꼬.

- 정철, 「사미인곡」 -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작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17. (나)의 '부뚝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뚝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뚝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뚝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뚝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뚝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 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웃'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재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문학'서정'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 서정 장르 주제 = 정서 (감정,느낌,생각,태도,반응)  
← (문학적 관습) ← 상황/분위기
- 문장 구조 S O C Ad V & 수식, 반복, 강조
- 전체 구조, 시상 전개방식, 특이한 소재, 제목 집중
- 문학적 관습, 전형적 주제 매우 중요
  - 개념어 문제 10% 내외
  - 내용-공감-감정 처리 문제 90%
  - 주제 관련 키워드 선지 정당확률 87%
 (14~20기출 14문항 중 11문항)
- 선지 판단은, 주제로 좁히고 필요시 발췌득
  -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게 출제 목표

**고전시가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 서정장르 접근법 베이스
- 소리나는대로 속발음, 한자어/문맥 추론
- 전형적 주제
  - cf) 유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충+효, 충=연군지정, 충=관직 나가야지 = 시험치려면 학문 해야지 - 학문=수양해야지 = 학문=수양하려면=자연친화 - 자연친화 하다보면 또 물아일체. 매우 뻔함
  - cf) 고려가요 - 삼분후 (3음보, 분절체, 후렴구)
 근데 이만 개념 1도 안 중요함. (시대에 따라 개념이 중요해지는 교육과정/학계 흐름이 있음. 올해는 아님)
  - \*사랑 똑같음. 나라면, 그 시절에,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이! 관직 나가고 싶구나, 근데 자연도 좋구나, 방향했겠네. 자연 놀다 보니 좋구나, 무릉도원이 여기구나! 맨날 이런 거임.
  -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게 출제 목표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작품에 적용합니다.5)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반복-강조-정보가치 높아짐 ⇨ 주제

수식어+대상	속성 부여	핵심 대상	변주. 상징. 비유
고요히		누구	발자취
푸른 하늘		누구	얼굴
향기		누구	입김
시내		누구	노래
옥.곱게 단장		누구	시

주제 보이죠?

5) 국어 국문학 베이스로 접근하면, 한용운 시인이 ①스님이었으니 여기서 누구=종교적 절대자 ②학자였으니 누구=진리 ③독립운동가였으니 누구=조국 이라고도 해석하지만, 국어교육학 지금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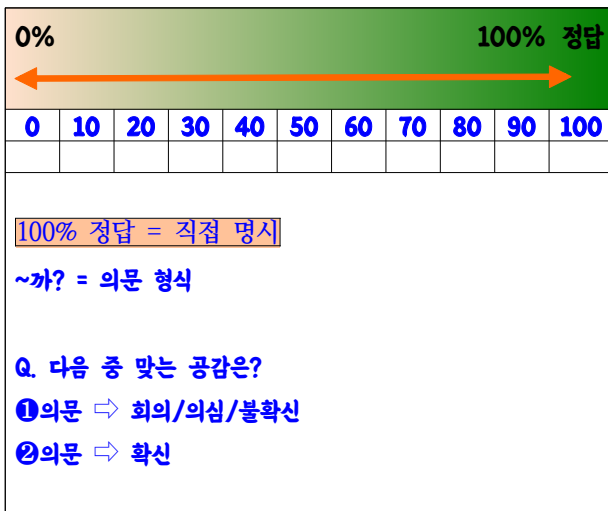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알 수 없어요 '한용운'**

구조	표면적 정보 ⇨ (문학적관습) ⇨ 이면적 정보	
	화자.청자	상황/정서/구조
도입 촉발		고요히. 누구?
전환 유지		푸른 하늘. 누구? 향기. 누구? 시내. 누구? 곰게 단장. 누구?
집약		나의 가슴 = 누구 지키는 등불(의지)

주제 = 정보가치 높은 내용 + 구조  
 feat. 평가원 출제자

#5. 개념은 이렇게

#6. 정답/감정 농도 스펙트럼은 이렇게



좀 더 주제와 구조를 보겠습니다.

~까? 의문의 형식으로 끝나긴 합니다.

하지만!

수식어+대상		핵심 대상	변주. 상징. 비유	형식
고요히	속성 부여	누구	발자취	~까?
푸른 하늘		누구	얼굴	~까?
향기		누구	입김	~까?
시내		누구	노래	~까?
웁.곰게 단장		누구	시	~까?

하지만!

①②③④⑤ 5번을 반복한다면?

반복 = 강조

그렇다면 의문/회의/불확실인가요?

아니면 확신인가요?

거기다가 마지막 집약 파트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S / V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

아 끊임 없이 탄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그래. 나의 가슴. 그칠줄 모르고 타지.

즉, 의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지킨다?

즉, 의지!

근데 약한 등불?

강한 등불이어야 강력한 의지 아닌가?

nono

Q. 다음 중 가장 '땃'있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

① 약자가 부당한 강자에게 저항

② 강자가 부당한 강자에게 저항

③ 강자가 부당한 약자에게 혼구녕

누구나 ①번이쥬. 당연히 약한 등불인데도 지킨다!의지!



우선 아래와 같은 요소로 나눕니다.  
아래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명시해봅시다

	①화자	②청자	③언어	④맥락	⑤소통	⑥의도
대화						
대화체						
대화적						
독백						
독백적						
독백체						
방백						

문법 : 문장의 법칙  
문장 : 하나의 완결된 의미전달 체계  
즉, 문법은 하나의 완결된 의미 전달 체계에 대한 법칙설명을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한 문장' 단위로 의미 전달이 된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 됨?  
즉, 상황 맥락 고려가 필요하죠.  
또한 소통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의지/의도도 있는지도!

그래서  
문법이 아닌 '언어'라는 과목명을 갖게 된 것이고  
담화=>화용론=>화법 과목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말하기 듣기 => 듣기 평가로는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담화 : 발화 혹은 발화의 연속체  
담화의 요소 : 화자, 청자, 메시지(언어), 상황/맥락

이렇게 분석하면?

	①화자	②청자	③언어	④맥락	⑤소통	⑥의도
대화	○	○	△		○	○
대화체						○
대화적						
독백	○	△			X	X
독백체						X
독백적						
방백	배우	관객	○		○	○

생각과 다르죠?

대화 = 화자와 청자가 소통을 실제로 하면 대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자, 청자,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작년까지 수능 개념) => (올해 수능개념)  
언어 ⇨ 언어 (분절음운)  
반언어 ⇨ 준언어 (비분절음운)  
비언어 ⇨ 비언어 (몸짓, 손짓 발짓)  
등에서  
비언어로도 소통이 있으면 '대화'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즉, 대화vs독백에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백은?  
의외로 청자가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혼자말을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죠?  
그래도 독백으로 봅니다.  
즉, 소통 의지가 없을 때 독백입니다.

그렇다면 ‘~체’라는 말은?  
 문‘체’에서 옵니다.  
 문체? 단순한 스타일이 아닌  
 글쓴 사람의 의도를 담은 도구입니다.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나왔네요.

대화체, 독백체  
 에서의 ~체는  
 의도 유무로 결정

	① 화자	② 청자	③ 언어	④ 맥락	⑤ 소통	⑥ 의도
대화	○	○	△		○	○
대화체						○
대화적						
독백	○	△			X	X
독백체						X
독백적						
방백	배우	관객	○		○	○

그렇다면 ‘~적’은?  
 = 성격을 의미합니다.

즉, 대화의 성격, 독백의 성격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니 화자 청자 유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과 의도  
 즉, 대화의 성격은 소통이 있고 의도도 있는 것  
 독백의 성격은 소통도 없고 의도도 없는 것  
 결국?  
 대화+대화체 = 대화적  
 독백+독백적 = 독백적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

이렇게 정확한 개념 암기.  
 정말 수능에서는 무쓸모입니다.

제 지적 수준을 자랑  
 제 전문성을 자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보장하기 위한  
 설명이며,

특히나  
 ‘긴장’이라는 개념은 더더욱 문제가 큼니다.  
 1타 강사 교재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잡되  
 수능 대비로 크게 의미를 두진 맙시다.

Q. 다음의 개념어를 정의하시오.

1. 긴장 =
2. 시적 긴장 =
3. 극적 긴장 =

**정확히 정리합니다.**

**문학에서 긴장 = 갈등**

**시적 긴장 = 갈등 절대 아닙니다.**  
 시적 긴장 = 시가 시 다워 짐

**그럼,**  
**극적 긴장 = 극이 극 다워 짐?**  
**Q. 도대체 시가 시답다는게? 뭐죠?**

**번역상에서의 문제와, 비전문성의 교집합은 수험생에게  
 이런 재앙을 가져 옵니다.**



시의 3요소

운율 심상 함축

즉, 모든 시는 함축이 있습니다

표면적=지시적,사전적 의미 vs 이면적=함축적,비유적 의미

<=> 일상언어 vs 문학언어

즉, 당연히 모든 시에는 함축이 있고

당연히 모든 시는 시 답습니다.

그 핵심, 시 답다 = 시의 성격 = 시어의 함축성 =

표면적 의미vs이면적 의미입니다

extension (외연 = 지시/사전적/표면적 의미)

intension (내포 = 함축/비유/이면적 의미)

여기서 접두사인 ex-, in-을 떼어버리고

-tension만 남기는데 번역을 '긴장'으로

그러면 갈등=긴장과 구분이 안 되니

시적 긴장으로 번역을 합니다.

대재앙의 시작이죠.

시적 긴장을 갈등으로 읽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는 시적 긴장 시가 시답다. 그게 뭘데? 설명을

못합니다. 증언부연 허가 길어집니다.

당연히, 시어는 외연과 내포사이의 거리가 있고,

그 간격의 정도는

시어의 특성 = 시의 성격 = 시가 시답다

일 때 높아집니다.

그래서

'~~라는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라는 선지는 항상 개념적으로 옳은 선지가 됩니다.

시적 긴장이 높지 않은 시어, 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는 함축적이기 때문입니다.

극 : 서사장르.

극적이다 : 극의 성격이 있다

서사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구성 = plot

구성 = 서사적 특징

특히, 극적 특징이 잘 드러남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

즉, 극, 서사의 핵심은 '절정/반전'에 있음

극적 = 절정/반전/갈등의 고조

으로 읽으면 됩니다.6)

열심히 개념 했지만.

의미 크게 없습니다.

주제-구조 90% 이상

개념 10% 미만

정답선지 확률이 그렇습니다.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연물, 인격 부여, 대화 상대, 대화체, 독백체, 교차, 극적 효과, 색채어... 다 개념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제 잡으세요... 잉? 네 4번 바로 보이죠?

6) 물론 이것도 논문 한 트럭입니다. 제가 한 트럭은 못 읽고 한 트럭크는 읽었습니다. 고3 수준, 수능 수준이면 딱 이렇게! 정해 드림.

잠시 시론 복습하고 갑니다.

아래의 문제를 지문 없이 풀어봅니다.  
특히 집중합니다.

# 주제

머릿 속에 오로지 '주제'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풀어봅니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과외나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은 생각이 많을수록 오답으로 갑니다. 간단히 생각하세요. **주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어디에 밑줄이 가야하나요?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다른 선지들도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출제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데, '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출제할 부분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제, 주제의식, 중심소재, 중심대상** 과 같이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써서 만든 선지가 정답 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의 문제를 지문 없이 풀어봅니다.**

**머릿 속에 오로지 '주제'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풀어봅니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A형 37번〉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에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2018학년도 9월 20번〉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B형〉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A형〉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B형 31번>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A형 37번>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에 있어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2018학년도 9월 20번>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B형>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A형>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민기 힘들겠지만, 밑줄 친 선지가 모두  
정답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된 문항의 70~80%는 단지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주제, 주제의식, 중심소재, 중심대상)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답이 되었습니다.<sup>8)</sup> 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에서 위와 같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만큼 출제자들은,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제를 하다보면 출제할 내용이 주제 외에는 없는 경우도 많으니 더욱더 이런 경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면, 다른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주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선지를 고르기만 해도 정답률은 7~80%입니다.)

특히, 요즘의 비문학, 독서 문항은 난이도가 상당히 때문에, 이렇게 까지 문제가 쉽게 풀릴까?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문학, 독서 강의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쉽게 풀립니다. 심지어 그런 문항들이 많습니다.

시론 복습 필요하겠죠?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의인법? 기억 나나요?

주제가 아니었으니 기억 안 날 가능성 높습니다.

일단 주제 집중.

좁히고 발췌독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대화체

독백체

교차?

극적효과?

언제 찾을래요?

7) 예외인 문항. <2015학년도 9월 A형 31번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 하고 있다.>, <2015학년도 6월 B형 31번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B형 32번 ① [A]와 <보기>는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8) 참고할 문항. <2014학년도 A형 수능 31번 3번 선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형기 낙화>, <2014학년도 A형 9월 31번 1번 선지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압도적 수능 국어 전문가.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색채어? 역시

주제가 아니었으니 기억 안 날 가능성 높습니다.

일단 주제 집중.

정답이 안 보이면 나중에 좁히고 발췌독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개념으로 봐도 정답

출제 양상으로 봐도 정답

<b>시의 3요소</b>
<b>운율 심상 함축</b>
<b>시의 표현법</b>
<b>비유법 변화법 강조법</b>

시의 정의 자체가 운율 심상 함축이라서

시에는 100% 운율 심상 함축이 있고

특히 함축-상징/비유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제의식?

개념으로 보면 100% 정답입니다.

주제로 봐도 주제의식 87% 정답입니다.

좁히고 발췌독을 해도 애를 해야죠!

불안하면, 시간이 정말 많음 다음과 같이 발췌독 갑니다.

(가)에서 주제인 '누구'를 상징하는 오동잎, 하늘, 향기, 시내, 저녁놀...전부 상징

(나)에서? 주제인 사랑을 '배를 매는 것'으로

(다)남에 대한 사랑 = 옷 지어 보냄

당연히 정답!

이래야 시간이 줄고, 정보 판단이 줄어드니 실수도 줄고, 피로도도 줄고!

이어지는 14번 문제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식어+대상	속성 부여	핵심 대상	변주. 상징. 비유	형식
고요히		누구	발자취	~까?
푸른 하늘		누구	얼굴	~까?
향기		누구	입김	~까?
시내		누구	노래	~까?
속.곧게 단장		누구	시	~까?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주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황당할 정도로 주제 구조 잡으면 바로 정답 보이네요!**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보기는 해당 문항을 지배하는 설계일 뿐 작품을 지배하는 설계는 아닙니다.**  
 그러니 **보기에 의존해서 작품 감상 연습을 하면, 궁극적 실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주제**

**당연히 맞겠죠? 답 없으면 나중에 좁히고 발췌독**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변뇌**와도 같은 것이군.

**주제**

**주제 절대자. 만남. 가능한데. 막는 변뇌?**

**이건 나중에 좁히고 발췌독**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주제**

**답. 끝...**

**회의? 확신! 뒤의 정답 스펙트럼 참고.**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주제**

**절대자. 주제 관련될 거고.**

**답 없으면 나중에 좁히고 발췌독**

⑤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주제**

**의지로 집약했으니 역시 가능**

수식어+대상	속성 부여	핵심 대상	변주. 상징. 비유	형식
꼭 요히		누구	발자취	~까?
푸른 나무		누구	얼굴	~까?
향기		누구	입김	~까?
시내		누구	노래	~까?
옥.곱게 단장		누구	시	~까?

타고 남은 재 = 기름 = 끝없이 타다 ⇨ 의지  
 그칠 줄 모르고 탄다 ⇨ 의지  
 나의 가슴 ⇨ 의지  
 지키는 ⇨ 의지  
 등불 ⇨ 의지  
 약한 등불 ⇨ 의지 더더 의지

**0%** **100% 정답**  
**회의/의심/불신/의문** **의지 확신**

③ ㉔: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주제**

답. 끝...

이어지는 작품은

서울대 졸업 직전 대학 영어 수업 서울대 인문대 1동 건물, 제 사랑 이야기 수업시간에 들려드렸죠?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장석남 시인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공감해봅시다.

(나) 아무 소리도 없이 팔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뚜뚱개** 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닳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A]

- 장석남, 「배를 매며」 -

**도입/축발**

(나) 아무 소리도 없이 팔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표면적 정보**

배가 닿는 상황을 묘사?

**이면적 정보**

왜 했을까요?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님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표면적 정보** → **이면적 정보**

아하! 사랑에 빠지는 것 = 배를 부둣가에 매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주제**

사랑이 그런거구나 깨달음

빛 가운데 배는 홀렁이며  
 은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이어지는 고전시가. 정철 사미인곡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 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좇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땀다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 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뒤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오 북극에 별이 보  
 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내  
 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  
 에 다 비추어 심산공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  
 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내  
 어 임 계신 데 쓰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저.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걷어 해 저문 대  
 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셀꼬.

- 정철, 「사미인곡」 -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우선 계절에 따른 전개 방식이 보이지만, 사실 나는 사시사절 님 생각해요 말고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 세 가지 피었어라.

**문학적 관습**

매화 = 절개  
 뻥하죠?  
 조선 = 유교적 가치관 = 충 = 절개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좇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주제/정서**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 각만 하네요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땀다 여기실꼬.

**표면적 정보** → **이면적 정보**

매화 = 절개 보낸다?  
 님에게 내 충심을 절개를 알려드리고 싶다.  
 하지만? 님이 반기실지 확신은 없구나.

정도 읽으면 충분히 공감 되죠?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상황/분위기

나위 수막  
뭔지 몰라도 됩니다.  
최소한 상황 분위기.  
적막. 비어있네요.

부용(芙蓉)을 걸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상황/분위기+정서

남을 기다리니 날이 길겠죠?  
시름. 정서도 있네요.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전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 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표면⇒이면 / 문학적 관습

원앙 : 금슬 좋은 부부  
그만큼 임을 생각한다.  
좋은 실력으로 옷을 지어 보낸다...  
나 실력 있으니 유배 끝내고 불러줘요 뭐 이런거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표면⇒이면 / 문학적 관습

하지만 거리가 멀죠  
단절 상황 그리고 확신도 없어요. 반기실지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림(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꺾어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표면⇒이면 / 문학적 관습

봉황 = 조선의 왕. 임금님의 성정을 기원하네요!

진공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내어 임 계신 데 쓰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걷어 해 저문 대 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입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셀꼬.

정말 별 내용 없어요.  
내가 이리 추운데  
임금님 더 추울텐데

봄 기운가지고 남에게 보내고 싶고=>남 걱정이죠  
님생각 많이 하고... 뭐 그런 상황과 정서

아까 (나)시의 주제는?  
배를 매는 것 = 사랑에 빠지는 것  
그러면?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갈구? 사랑이 배를 매는 거라 깨닫는건데?**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덧없음? 사랑에 빠지는데?**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이거 정답 보이죠?!**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운명? 섭리?**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이것도 정답 맞는데? 그러면 좁히고 발췌독인데...**

잠시 시론 다시 갑니다.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아하!

기억 나시죠?

위의 문항도 '비로소' = 구조 역할을 했죠

'구름의 파수병' 27번 문항

위 시는 촉발부터 자신의 그릇됨을 깨닫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친구 방문 뒤라고 했으니 2번 선지 out 마찬가지로

③번 선지. 배를 매는 행위는 [A]이전 진작 연결되었으니 틀렸구나!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이것도 정답 맞는데? 그러면 좁히고 받쳐독인데... 네! 역시 정답!

이 사고 흐름 잘 잡아주세요! 꼭!

이어지는 문항.

특이한 소재 배경 출제한다 했고.

(나) 부뚱가 = 사랑이 매어지는 곳

(다) 수막 = 비어있는 상황...

아! 님과 단절, 부재의 상황이구나. 그럼?

17. (나)의 '부뚱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뚱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뚱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뚱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뚱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뚱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바로 정답 보이나요?

역시 주제 정답!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의 그리워 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웃'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입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지적 화자와 청자가 실재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주제=상황/분위기+정서+문학적 관습

남녀 사랑 = 군신 관계에서의 총 맞음!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상황

단절 상황이잖아요!

정답!

꼭!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전해지길

성정을 베푸시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것 분

정답!